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원' 신축

전기차 충전시설 165기 추가 설치

전주시, 치매노인 전문적 보호 서비스 제공... 170억원 투입 2026년 하반기 개원 목표 추진

전주에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원이 들어선다. 전주시는 약 170억 원을 들여 150여 명의 치매노인에게 전문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원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에 주사무소 또는 산하시설을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토지사용 승낙 공개모집을 실시해 올 하반기에

부지 선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부지 선정이 완료되면 내년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6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신축에 나설 계획이다. 장기요양 2~5등급 치매 환자가 입소하는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원은 치매전담실 3실이 필수적으로 설치된다. 치매전담실은 치매노인들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보다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된

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들이 치매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 본인에게는 현실인식 훈련, 운동요법, 인지 자극 훈련 등의 프로그램이 매일 제공되고, 가족들에게는 교육·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시는 치매안심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되는 인식표를 발급하고 사전 지문을 등록하

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시되고 본인뿐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받는 질환이어서 한 개인이 감당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전주시는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올해까지 공공기관·공영주차장 등 55개소에 추진

전주시는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 등 55개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165기(급속 48기, 완속 117기)를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전주시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1755기(급속 179기, 완속 1576기)에서 1920기(급속 227기, 완속 1693기)로 늘어나게 됐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은 점점 늘어나는 전기차와 그로 인한 충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충전시설 가운데에는 교통약자 배려충전소 4기가 포함돼 있다. 전주에 교통약자 배려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충전완료 안내문자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전기차 충전 편의를 높이는 데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총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이나 공공건물 부설주차장은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어서 내년 1월 27일까지 충전시설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이용시설은 2024년 1월 27일까지,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해당 기간까지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통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산해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겠다"면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친환경 차량 확대 등 수송부분의 변화가 필요하며, 친환경 차량 및 충전시설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자연생태관, '탄소중립' 건물 밑그림

시, 증축·리모델링 위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열고 당선작 선정

전주자연생태관이 '탄소중립' 건물로 변신한다. 전주시는 전주자연생태관 탄소중립모델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과 (주)목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제출한 작품인 '유연원(전주 자연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흐름을 이어가는 자연생태관)'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창에는 '자연생태관 리모델링'의 밑그림을 그리는 설계권이 주어진다.



전주시는 전주자연생태관 탄소중립모델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과 (주)목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제출한 작품인 '유연원(전주 자연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흐름을 이어가는 자연생태관)'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유연원'은 개방형 상호 등을 통해 외부공간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전시계획 개념 △내부공간 구성 등의 전반적인 완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당선작을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5억 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뒤 71억 원을 투입해 2023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전주자연생태관 탄소중립모델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건물 리모델링과 병행해 내부 공간도 보다 풍성하게 꾸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태, 문화, 에너지 등의 다양한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해 타겟층, 주제, 공간구성, 제작기법 등을 논의했다. 내부공간은 1층에는 △전주천 생태문화지도 △전주천 수생생물실 △탄소중립 모델 홍보실 △운영사무실 및 연구실 등이, 2층에는 △휴게형 생태도서실 △전주천 수변생물실 △시청각 체험존 △교육 및 체험실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공공부문 탄소중립모델 발굴 사업으로 자연생태관이 리모델링되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건물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기존 전시위주의 관람에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생태교육 확충 등으로 체험과 교육·휴식의 공간 등 복합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플랫폼·이동노동자' 찾아가는 안전노동 캠페인

전주시, 여름철 온열 질환 예방·안전 노동 위해 얼음물·쿨토시 전달

전주시가 폭염 속에서도 밤낮없이 일하는 플랫폼·이동노동자를 찾아 안전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시는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배달·택배·대리운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휴식과 안전한 노동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찾아가는 안전노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무더위 속 현장 노동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운전 중 자외선 차



단과 병방 차단을 위한 쿨토시 200개와 충분한 물 섭취를 위한 얼음생수가 제공됐다. /김윤상 기자

학교 밖 청소년 147명에 '꿈보신 헤드림'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삼계탕 키트' 2차 꿈드림 딜리버리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중복을 맞아 26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을 위해 식료품을 지원하는 '2차 꿈드림 딜리버리' 사업을 전개했다. 이번 꿈드림 딜리버리 주제를 '꿈보신 헤드림'으로 정한 센터는 무더위에 지친 학교 밖 청소년 140여 명에게 삼

계탕 재료 등 몸보신을 할 수 있는 식료품과 KGC인삼공사로부터 후원을 받은 원스인어문 오버나이트 팩 등의 약외품을 함께 전달했다. 학교 밖 청소년 전문기관인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 교육, 자립, 복지,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일상적 고민에서부터 학업 복귀, 사회진입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혜선 센터장은 "코로나19 상황과 무더위 속에서도 다양한 자기 계발 활동과 검정고시 준비 등 자신의 진로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격려를 하고자 2차 꿈드림 딜리버리를 준비했다"면서 "청소년들의 영양 개선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민·관·군·경·소방 '전북권역 화랑훈련' 실시

전주시는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5일 동안 시내 전역에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2년 전북권역 화랑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여파로 2018년 이후 중단된 지 4년 만에 실시하는 화랑훈련이다. 시는 훈련 기간에 지역 내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각종 적의 위협과 재난 위험 요인을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통합방위태세 능력을 배양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군·경합동상황실을 포함한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주·야간 2교대로 100여 명의 직원을 투입해 실시간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대처하는 한편, 거동이 수산한 차를 본 경유 가까운 군부대(국번없이 1338)나 경찰서(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